

## 매복 상악견치의 관리

장 기 택 /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소아치과

견치는 상악 치열의 주춧돌로 불리울 만큼 기능 및 심미적으로 중요한 치아이다. 견치가 매복될 경우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증상을 나타내는 경우가 드물어, 주변 치아 뿌리의 흡수와 같은 문제를 이미 일으키는 시점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 견치의 매복을 늦게 발견할수록 문제는 심각해지고, 이를 치료하기도 어려워진다.

견치가 매복되는 것을 예방하고,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성장기 어린이들은 충치 같은 다른 문제가 없더라도 적어도 6개월에 한 번 이상 치과에 방문하여 치아의 발육 및 맹출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턱뼈 내에서 치아가 발육하고 맹출하는 것은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파노라마 방사선 사진을 주기적으로 촬영하는 것이 추천된다.

매복된 견치가 발견되면, 적절한 방법으로 조기에 개입하여 치료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도가 심하지 않을 때에는 악궁 확장, 유견치 발거, 외과적 노출만으로도 정상적인 맹출을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맹출로가 정상에서 많이 벗어나거나 주변 치아에 위해를 가하고 있을 때에는 외과적 노출 후 교정적 견인을 시행해야 할 수도 있다. 이러한 치료 과정은 긴 시간과 비용이 소모되는 힘든 과정이지만, 교합과 심미적인 관점에서 소중한 견치를 보존할 수 있다는 면에서 충분한 가치가 있는 치료 과정이다. 치아의 위치가 교정적 견인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좋지 않은 경우 자가치아 이식을 고려해볼 수 있다. 자가치아 이식은 난이도가 높으며 매번 성공하는 것은 아니지만, 견치를 보존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여겨진다. 다른 치료방법이 실패하거나, 자가치아 이식도 불가능할 만큼 견치를 위한 공간이 없을 경우 매복된 견치를 발치해야 한다. 이후 자발적인 배열을 기대해 보거나, 공간을 성장기까지 유지한 후 성인기에 임플란트를 시행한다.

### 학력 및 경력

- \* 서울대학교치과대학 졸업
- \* 서울대학교대학원 석사, 박사
- \*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장애인진료실장, 소아치과과장, 진료처장
- \* 대한소아치과학회 전 회장
- \* 현, 서울대치과병원, 서울대치의학대학원 소아치과 교수